

BOUYGUES

2006년 3월
달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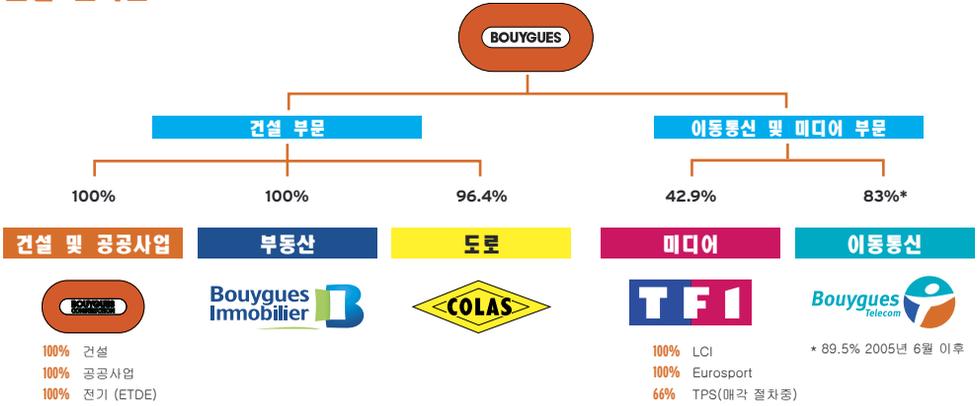
2005



기 업 개 요

2006년 2월 15일 현재

그룹 조직도



그룹 경영진

부이그 그룹 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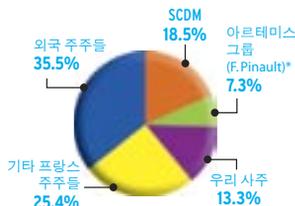
Martin BOUYGUES	회장
Olivier POUPART-LAFARGE	부회장
Olivier BOUYGUES	부회장
Alain POUYAT	정보 및 신기술 총괄 부사장
Jean-Claude TOSTIVIN	인사 및 행정 총괄 이사
Lionel VERDOUCK	자금 관리 및 재무 총괄 이사
Jean-François GUILLEMIN	사무국장

5개 사업 부문 최고경영자

Yves GABRIEL	Bouygues Construction 회장
François BERTIÈRE	Bouygues Immobilier 회장
Alain DUPONT	Colas 회장
Patrick LE LAY	TF1 회장
Philippe MONTAGNER	Bouygues Telecom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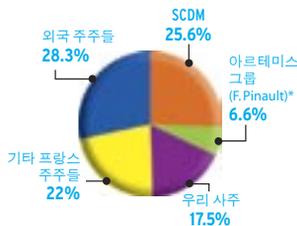
2006년 2월 15일 현재 자본 구조

자본



주식 수: 337 150 519

의결권



의결권 수: 423 787 714

SCDM은 마르탕 부이그 회장과 올리비에 부이그 부회장이 관리하는 회사이다. SCDM과 아르테미스 (Artémis) 그룹은 주주 협약으로 연계되어 있다.

* 2006년 2월 13일 AMF에 신고.

부이그 그룹의 장점

- 모든 사업 부문에서 공유하는 강한 기업 문화
- 전도 유망한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바탕으로 다각화되는 그룹
- 상당량의 잉여현금흐름
- 탄탄한 재무 구조 및 막대한 투자 능력

2005년 주요 사항

- 주식 시장에서의 뛰어난 성과
- 건설업종 매출 및 수익의 큰 폭 상승. 건설업 주주량 기록적 수준
- 주당 5 € 라는 예외적 수익 분배 (17 억 유로).
- 부이그 그룹의 부이그 텔레콤 자본 참여 비중 증가
- 부이그 텔레콤의 Edge 전국 망 브로드밴드 모바일 서비스 런칭
- TF1, M6 및 Vivendi Universal 의 Pay TV 분야 파트너십 조약 체결
- 15년 만기 7억 5천만 유로 채권 10억 유로로 증가

뛰어난 성과를 거둔 2005년



2005년에도 부이그 그룹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2004년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경상순이익은 19%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본 수익성은 지난 해 12.7%였던 데 반해 16.5%에 달했습니다.

부이그 그룹의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2001년 이후 매출은 18% 증가했으며 영업 이익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순이익은 세 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장기적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이그 건설은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익 및 수준 부문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부이그 부동산은 또 다시 매출총이익을 개선하였으며 주택시장에서 매우 역동적인 영업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콜라스는 도로 부문 세계 1위 기업으로서 다시금 기록적인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콜라스의 확고한 국제적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TF1은 종합 채널 가운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TF1의 시청률이 이를 증명합니다. 광고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TF1의 실적은 이익과 매출 양면에서 확고부동했습니다. TPS의 미래에 대한 협약 초안에 따라 TF1은 콘텐츠 공급자(CP)로서의 핵심 사업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10년 만에 부이그 텔레콤의 가입자수가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1 400만 명이 i-mode 가입자입니다. 초고속 부문에서 Edge 기술에 이어 차세대 UMTS (HSDPA)로 단계로 넘어가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가장 적절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2005년에 전국망, 고품질의 초고속 i-mode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저축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에 따라 부이그 그룹은 직원 할당 자본 비율을 또 다시 성공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러한 조치 이후, 부이그 그룹 직원들은 공동으로 총자본의 13.3%에 해당하는 우리사주를 보유하며 17.5%의 의결권을 가진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보통주 배당금은 20% 상승 중입니다. 이사회는 2006년 4월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당 0.90 유로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부이그의 기업 문화는 고객 만족을 목표로 하며 인간 및 환경 존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에 드러나는 기업 문화는, 책임감 있게 약속을 이행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며 신중하게 선택하는 기업주의 행동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이그 그룹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안에서 더욱 심화, 조율, 공식화되었습니다.

2006년에 대한 밝은 전망이 있기에 우리는 프랑스 내 8 000 명을 포함한 14 000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룹 직원들의 노고, 열정 그리고 정신력에 대해, 그리고 부이그사 주주들의 신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부이그 그룹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성공과 앞으로 다가올 성공의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2006년 2월 28일

마르탕 부이그
회장

매출액

24 073 M€ (+ 15%)

영업이익

1 748 M€ (+ 12%)

순이익 (그룹 지분)

832 M€ (+ 19%)*

(*) 2004년 소르(Saur)사 매각 차익 제외

자기자본 대 부채 비율

42%

현금 흐름

3 090 M€ (+ 14%)

주당 순배당금

0.90 €* (+ 20%)

(*) 2006년 4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제안 예정

수익성 급등

부이그 그룹에 있어 2005년에 실현된 매출과 이익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건설부문에서는 실적과 수주 면에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매출은 2004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 모바일 투 모바일 빌링(mobile-to-mobile billing) 제도를 도입했다는 유사한 기준으로 본다면 11% 성장한 것이다. 소르(Saur)사 매각 차익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은 12%, 순이익은 19% 증가하였다. 투자자본수익성은 2003년 8.6%, 2004년 12.7%였던 것에 반해 2005년에는 16.5%에 달했다. 부이그 그룹의 재무구조는 건실하다.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순부채는 23억 5천 2백만 유로이다. 자기자본 대비 순부채 비율은 42%에 달한다. 부이그 그룹은 여전히 안정적 전망과 함께 S&P A- 등급을 받고 있다. 현금 흐름은 14% 증가하여 30억 9천만 유로에 이르렀다. 잉여현금흐름은 11억 4백만 유로에 달한다 (+10%).

연결 대차대조표 (12월 31일 기준)

자산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 유형 및 무형 고정자산	5 649	5 671
· 영업권	4 540	4 618
· 고정금융자산	1 292	1 155
고정 자산	11 481	11 444
· 유동 자산	9 207	9 375
· 현금 및 현금등가물	3 260	3 215
유동 자산	12 467	12 590
· 판매보유자산	-	564
자산 총계	23 948	24 598
부채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 자본 (그룹 지분)	3 998	4 630
· 소액주주지분	980	931
자기 자본	4 978	5 561
· 장기 부채	4 648	4 721
· 장기 미지급 비용	1176	1 265
· 기타 고정 부채	158	89
고정 부채	5 982	6 075
장기 자본	10 960	11 636
· 부채 (1년 내 만기)	242	694
· 유동 부채	12 494	11 740
· 단기은행차입금 및 당좌대월	252	178
유동 부채	12 988	12 612
· 판매보유자산에 대한 부채	-	350
부채 총계	23 948	24 598
· 순부채	1875	2 352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매출액	20 894	24 073
당기 영업 이익	1 557	1 852
· 기타 영업 이익 및 비용	-	(104)
영업 이익	1 557	1 748
순 금융 비용	(159)	(187)
· 기타 금융 이익 및 비용	(30)	(29)
· 법인세 비용	(501)	(570)
· 참여지분의 손익배당	37	62
사업폐지 및 판매보유자산운영 전 순익	904	1 024
· 사업폐지부문 및 판매보유자산 순익	211	14
순익 총계	1 115	1 038
· 소액주주지분	(206)	(206)
연결 순익 (그룹 지분)	909	832

연결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영업 활동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 714	3 090
· 운전자본 및 당기세액 변동	35	(511)
A- 영업 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	2 749	2 579
투자 활동		
· 순 영업투자	(1 047)	(1 229)
· 기타 투자 활동	(90)	688
B- 투자 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	(1 137)	(541)
재무 활동		
· 연내 지불 배당금	(258)	(2 004)
· 기타 재무 활동	(581)	(93)
C- 재무 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	(839)	(2 097)
D- 환율 변동 영향	(15)	31
순 캐시 포지션의 변동 (A + B + C + D)	758	29
· 기초의 현금	2 250	3 008
· 기말의 현금	3 008	3 037

주요 지표

(단위 : 백만 유로 □ IFRS)

매출액 :
+ 15%

영업 이익 :
+ 12%

순이익 :
- 8%

경상 순이익 :
+ 19%*

주당 경상이익 :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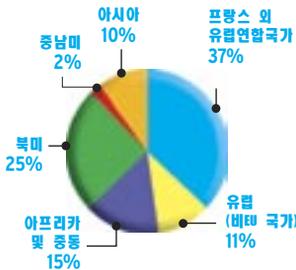
주당 순배당금 :
+ 20%

■ 해외 매출 비중



운영업투자 :
+ 17%

해외 매출액 :
7 127 M€



주가 추이

2005년 프랑스 CAC 40, 9위 기업



총 직원수

2005년 12월 31일 기준

115 441 명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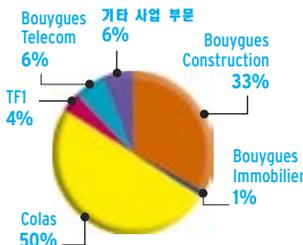
중

65 350 명

프랑스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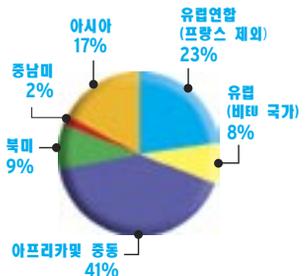
(약 57%)

계열사별 직원 비율



지역별 직원 비율

해외 직원 50 091 명



사업 부문별 기여도

2005년 부이그 그룹 매출은 15% 증가하여 241억 유로에 달한다 (유사한 회계기준으로 본다면 전년 대비 +11%).

부이그 건설 매출은 프랑스에서 13%, 해외에서 9% 증가하여 총 11% 증가하였다. 영업활동은 모든 시장에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이그 부동산의 매출 성장(+20%)은 2004년에 이루어진 상당수의 주택 매물 확보에 기인한 것이다.

콜라스는 매출에서 1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 특히 중부유럽 시장에서의 높은 매출로 이룬 성과이다. 변동사항이 없고 환율이 비

슷하다면 성장률은 프랑스에서 7%, 해외에서 16%, 총 11%에 이른다. 수주량은 여전히 모든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TF1의 매출은 안정적이었다. 주요 TF1 채널에서 거둔 순 광고 수입이 4사분기 3% 증가에 힘입어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기타 사업 매출 역시 1년 내내 안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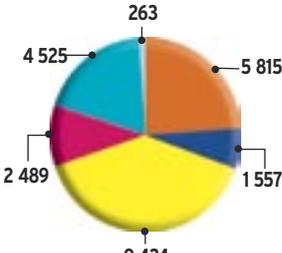
부이그 텔레콤은 45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였다(+24%, 유사한 회계기준으로 전년 대비 +3%). 또한 통신망 순매출은, 특히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모바일 투 모바일 빌링(mobile-to-mobile billing)으로 인

해 27% 증가하여 42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만약 2004년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면 통신망 순매출은 4% 증가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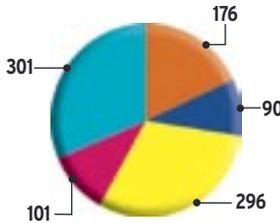
1996년 사업 시작 이후 10년 만에 부이그 텔레콤은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중 68.4%가 요금제 가입자들이다. 오늘날 i-mode™는 14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다. 이 중 10만 명이 초고속 i-mode™ 가입자이다. 초고속 Edge 전국망 덕분에 인구의 90% 이상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이 신규서비스들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단위 : 백만 유로 - IFRS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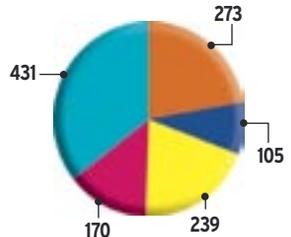


순이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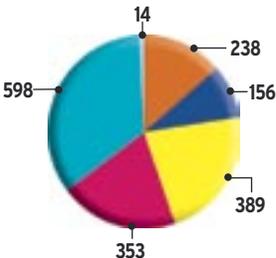
(1) 지주회사 및 기타부문 순이익 : -132 M€

잉여 현금 흐름⁽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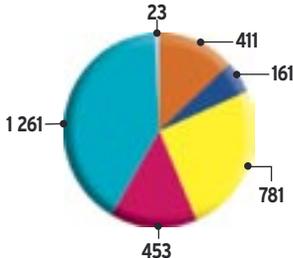


(2) 지주회사 및 기타부문 잉여현금유출입 : -114 M€

영업 이익



현금 유출입



■ Bouygues Construction
 ■ Colas
 ■ Bouygues Telecom
■ Bouygues Immobilier
 ■ TF1
 ■ 지주회사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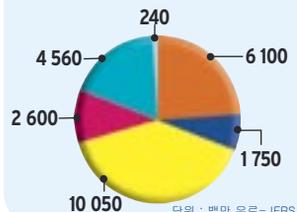
2006년 목표

매출액(목표치)

25,300 M€ (+5%)

중 해외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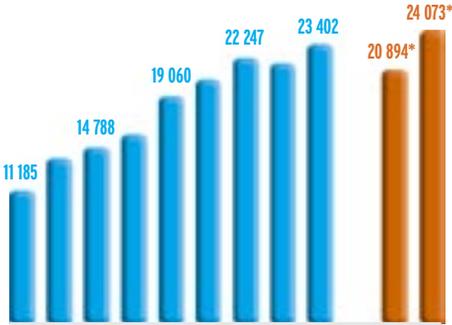
7,400 M€ (+4%)



단위 : 백만 유로 - IF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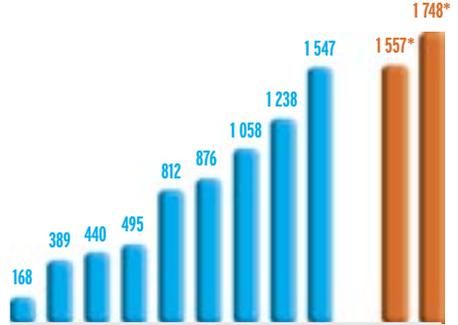
과거 10년간 주요 지표

매출액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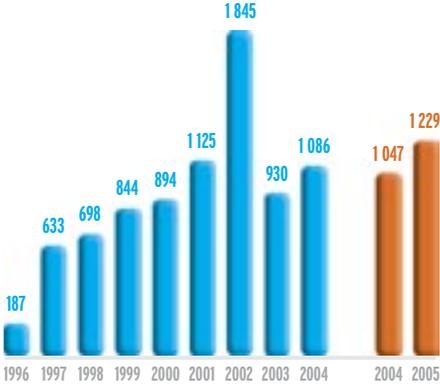
프랑스 일반회계기준 IFRS
* TPS 제외 (2005년 12월 말 현재, 매각 진행중)

영업 이익 (M€)



프랑스 일반회계기준 IFRS
* TPS 제외

순영업투자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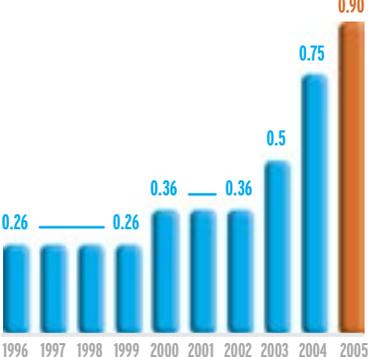
프랑스 일반회계기준 IFRS

순이익 (M€)



프랑스 일반회계기준 IFRS
■ 비경상 요소
■ 예외적 시세차익을 제외한 경상 요소

보통주 배당금 (€/주)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직원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지속 가능한 개발은 부이그 그룹의 고객과 직원의 강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이 개념은 타인 존중에 기반을 둔 부이그의 전략 및 가치관에 통합되며 장기적 비전에 포함된다. 2005년, 부이그 그룹은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부이그 그룹의 여러 다른 계열사의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부이그 그룹의 문화 및 가치관에 따라, 부이그 그룹은 그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완수하면서 고객에게 봉사하고자 한다. 지속적 개선 원칙을 적용하고 자발적, 혁신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전략 및 그 추진과정에서 환경 및 천연자원 보전, 삶의 질 향상, 경험 공유, 최고 기술 사용, 대화, 그리고 관련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이들의 참여를 고려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방향

부이그 그룹은,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직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며 그룹의 발전적 행보에 파트너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이미 많은 일을 주도하였다.

이제 이러한 의지는 노력의 심화 및 정당화,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 측정으로 나타난다.

직원

2005년 12월 31일 기준, 부이그 그룹의 직원수는 115 441 명이다.

기업 문화

부이그 그룹은 강한 기업문화를 토대로 발전을 이루었다. 처음부터 한결같이 직원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부이그 기업 문화의 특징이다. 공동체 의식, 책임감 고취 그리고 존중 같은 기본 원칙을 근간으로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미노랑주(Minorange) 동업조합 :



미노랑주의 동업조합은 이러한 신념이 오래 지속되어왔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프랑스의 부이그가 건설업종의 가치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미노랑주 동업조합의 회원수는 오늘날 906 명에 이르며 17개 단체를 통해 확대되었다. 미노랑주의 회원들은 안전준수, 기술원칙, 형제애, 그리고 애사심 같은 가치들을 공사 현장에 살아 숨쉬게 한다. 콜라스에서는 도로건설 동료협회가 같은 형태의 동업조합을 형성하고 있다.

고객 담당자 모임 :



2005년에 부이그 텔레콤은 고객 상담원의 업무를 조명하고 가장 훌륭한 상담원을 치하하기 위해서 고객 담당자 모임을 만들었다. 이 90명의 직원들은 기업 내 고객 관계 정책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채용 :

2005년에 부이그 그룹은 2004년(6 860명)보다 17% 증가한 8 000 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다. 이 중 77%는 정규직이다. 2006년 기업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부이그 그룹은 인력을 강화하고 프랑스 내 8 000 명을 포함, 모두 14 000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자별 철폐 :

루이 슈바이처가 주재하는 차별 금지 및 고용기회 확대위원회 (Halde)와의 협의에 따라 부이그 그룹의 계열사들은 내부적으로 모든 종류의 차별 철폐 방안을 찾기 위한 속고를 하기 시작했다. 마르탕 부이그 회장은 이미 여러 차례의 브리핑 미팅에서 그룹 내 320명의 주요 매니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주지시킨 바 있다.

추가 연금 :



그룹의 사회정책을 개선해야겠다는 고민과 은퇴시 예견되는 대체 수입의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이그 그룹은 2006년 1월부터 프랑스 내 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공동연금 저축 계획(Perco) 형태의 추가 연금 저축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매년 1 000 유로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전체 불입 금액의 20% 내지 50%에 이르는 금액을 회사가 추가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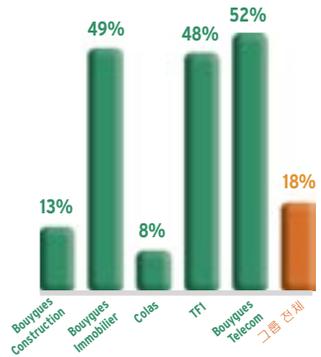
직원수 115 441 명 (2005년 12월 31일 기준)

직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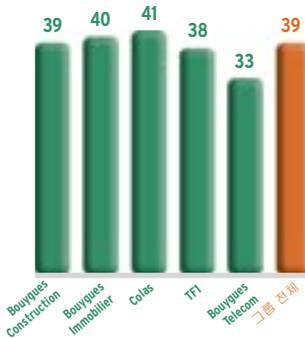


**프랑스 내 직원 96.8%
정규직 직원 3.2%
계약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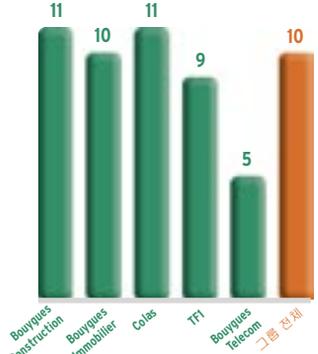
프랑스 내 계열사별 여직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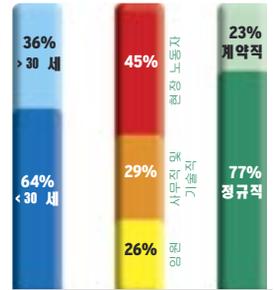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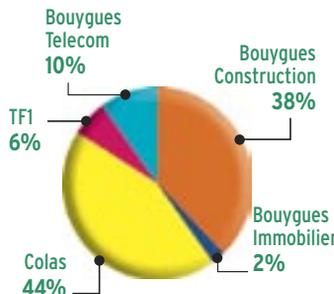
프랑스 내 직원 평균연령 39 세



프랑스 내 직원 평균근속기간 : 10 년



2005년 프랑스 내 신규채용 8 000 명



올리비에 부이그 그룹 부회장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의 조율 작업을 일임하였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창설되었다. 이 부서의 소명은 무엇보다도 그룹의 여러 계열사가 공히 최선의 규율을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다.

계열사들과의 교류

부이그 주식회사의 다섯 계열사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2005년 11월 처음으로 소집되었다. 연간 두세 차례 위원회 회원들이 각 계열사별로 추진한 활동과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할 것이다. 계열사들은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부문에서 부이그 그룹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평가 작업을 시행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각 계열사의 QSE 책임자들로 구성된 품질 안전 환경(Quality Security Environnement) 위원회가 그룹 내에서 실시되는 위험에 방 조치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경영방식에 대해 숙고하기 위해 소집된다.

윤리와 존중

부이그의 기업문화는 인간을 우선시하는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부이그 가치관 발전', '존중과 성과'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통해 윤리 및 동료간 존중에 있어 지켜야 할 행동양식을 권고하고 있다. 사회·환경 책임 담당팀이 2006년 내에 출범할 것이다.

프랑스시 부이그 기업 재단

2005년에 창설된 프랑스시 부

건설 부문의 주요 사항

Bouygues Construction

부이그 건설

- **부이그 건설**은 공공기관과 2005년 11월에 현장에 조인함으로써 실습 부문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여러 다른 프랑스 내 자회사들에서 학업 중인 135명의 젊은이들이 실습을 하였다. 베르사이유 상공회의소(CCI)와 파트너십을 맺고 1997년에 부이그 건설이 설립한 귀스타브 에펠 학습 센터(CFA)는 젊은이들의 직업 자격 여부를 학위 수여를 통해 평가할 권한을 갖고 있다.



- **태국의 반 남 켄 학교(학생수 400명)**는 2004년 말 쓰나미로 인해 파괴되었다. 부이그 바티망 인터내셔널(Bouygues Bâtiment International)의 자회사인 부이그 타이(Bouygues Thai)가 9개월이라는 기록적인 기간 내에 이 학교를 재건하였다. 부이그 타이는 미노랑주 동업조합의 지원과 함께 부이그 건설, 부이그 주식회사, 그리고 콜라스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이다.



- **QSE 블루 플랜의 일반적 채택** 부이그 건설의 자회사들은 현장에서 QSE 블루 플랜을 채택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특히 에너지 절약, 폐기물 관리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모든 신규 공사 현장에서 블루 플



랜을 채택하고 있는 파리 및 파리 근교에서는 프랑스 품질보증협회(AFAQ)가 블루 플랜 도입의 실용적, 실제적 그리고 경제적 특성을 인정하였다.

- **지역 사회와의 협의**는 부이그 건설에 의해 현장에서 전개된다. A28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서로 다른 시, 읍, 면에서 6개월 만에 90 차례 이



상의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런던에서는 사분기별 뉴스레터와 잦은 회의를 통해 홈오피스 프로젝트에 대해 주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Bouygues Immobilier

부이그 부동산

- **2005 텔레톤 기간 동안**, 부이그 부동산과 그 협력사들은 프랑스 근병중성 퇴치 협회를 위해 264 000 유로 이상을 모금하였다. 이로써 기부 기업들 중 4위를 차지하였다.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부이그 부동산 직원들은 전국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 (Tour de France)’에 참가하였다.



- 부이그 부동산은 2004년에 시작된 AgirVert® 계획을 추진하였다. 가이드북이 긍정적인 환경 관행을 전파하고 HEQ (High Environmental Quality)® 기준에 따라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AgirVert® 계획에 따라 16개 지역 프로젝트가 출범하였다.

- **구매 정책**은 품질 기준과 신뢰성 기준에 따라 토건업 도급회사들을 목록에 올리기 위해, 2005년에 부이그 부동산이 수립한 것이다. 이 계획은 용역회사들과의 대화를 이끌어냈으며 장기적 개선 계획과 함께 이 회사들이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 **정보 캠페인**은 지역주민을 대

상으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실시된다. 2005년, 부이그 부동산은, 파리 근교 부르 라렌느 (Bourg-la-Reine)에서 진행되는 건설계획에 반대 소송을 제기했던 한 단체와 함께 일했다. 지역주민들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너도밤나무를 베는 일만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이그 부동산은 시정에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다. 새 계획은 결국 나무의 이름을 따서 ‘주홍빛 너도밤나무’라고 명명되었다.



제물은 완전히 재생 가능한 원자재를 사용한다. 폐제품은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준다.

Colas

콜라스

- **5 200 신규 직원**, 다양한 자격 조건과 서로 다른 출신을 가진 이들이 2005년에 채용되었다. 이는 2004년에 비해 40% 증가한 숫자이다. 이러한 콜라스의 인력자원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 **2005에 콜라스는 60군데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 식물성 기름과 천연수지로 만든 광물복합체 베제콜 (Vegecol)을 사용했다.** 2004년에는 4군데의 현장에서만 베제콜을 사용했다. 콜라스의 여러 연구개발팀이 개발한 이 완벽한 아스팔트 대

- **콜라스는 생산 기지를 재건설하였다.** 80 헥타아르에 이르는 이 기지는 리옹 (Lyon) 도시권 한가운데 위치한 미용 (Mions)에 자리잡고 있다. ISO 14001과 9001을 획득한 시설들은 보호외벽을 설치하고 야외 재고를 폐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생산기지는 시간당 1 400 톤의 골재, 콘크리트, 도로포장용 타르 및 재활용 물질을 생산하며 지역 수요의 10%를 충당한다.

- **콜라스 클럽**은 2005년에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미셸 세르 혹은 (노동이민에 관한 강연을 한)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의 카트린 비톨 데벤덴과 같은 사상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선택에 대한 키포인트를 주제로 강연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콜라스는 사회적 이슈를 보다 더 잘 인식하기 위한 외부 인사와의 아이디어 교류를 장려하고 있다.

이그 기업 재단은 뛰어난 대학 입학 자격 취득자들에게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소명으로 한다.

해당 대학생들은 각각 부이그 직원 한 명의 후원을 받으며 4 내지 6년 동안 매년 1 500 내지 8 000 유로에 달하는 장학금을 받는다. 2005년에는 17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앞으로 해마다 30여명의 장학생이 선정될 것이다. 이는 부이그 그룹의 첫 다영역 메세나 활동이다

우리사주 제도

약 25 000 명의 직원들이 Bouygues Confiance 3 에 가입하였다. 이는 부이그 그룹의 프랑스 내 계열사 직원들에게 할당된 증자를 말한다.

이는 Bouygues Confiance (1999년)와 Bouygues Confiance 2 (2001년) 이후 세 번째 증자 활동이다. 1990년에 마련된 기업저축계획에도 여전히 모든 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Bouygues Confiance 3 이후, 그룹 직원들이 부이그 그룹 자본의 13.3 %와 주주 의결권의 17.5 %를 보유하게 되었다. 직원들에게 할당된 모든 공동 투자 자본을 가만하면 직원들은 공동으로 부이그 그룹의 2대 주주가 되는 셈이다. 이로써, 부이그 그룹은 직원들의 자본참여율 부문에서 CAC 40 프랑스 상장 기업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통신 및 미디어 부문의 주요 사항

TF1

- **TF1은 2005년에 우슈아이아(Ushuaia) TV를 출범시켰다.** 우슈아이아 TV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한 첫번째 채널이다. 편성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시청자들에게 경이로운 세계를 일깨워주기', '지구



를 이해하기', 그리고 '지구를 존중하기'

- **TF1과 우슈아이아 TV는 니콜라 윌로 재단과 프랑스 환경 에이전시인 ADEME에 의해 출범한 지구를 위한 도전**

(Earth Challenge)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일상의 간단한 행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년 동안, TF1은 지구를 위한 도전에 서명한 사람들의 수를 보여주는 카운터를 일주일에 한 번 일기 예보 방송 중에 공개할 것이다.

-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해방 60주년 행사**가 2005년 1월 27일 TF1 월드 텔레비전으로 생방송되었다. 수용자들의 증언으로 점철된 이



그룹의 가치관

- **사람**이 우리 그룹 기업들의 첫 번째 가치이다.
- **고객**은 기업의 존재 이유이다. 고객 만족은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다.
- **품질**은 경쟁력의 열쇠이다.
- **창의력**은 고객에게 최적의 가격으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해준다.
- **기술혁신**은 제품의 가격 및 성능을 개선시키며 우리 성공의 조건이다.
- 자기 자신과 타인, 환경 **존중**은 우리의 일상 행동에 영감을 준다.
- **승진**은 성과를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기초한다.
- **교육**은 직원들에게 지식을 넓히고 직장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젊은이들**은 그들의 잠재력으로 기업의 미래를 만들어 낸다.
- **도전**은 진보를 이끌어낸다. 리더의 위치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도전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 **직원들의 태도**는 기업이 기술적, 경제적 힘만 가졌을 때보다 더 강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

행사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기리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TF1은 11월에 '장애인 고용주간'에 참여하였다.** 이 채널은 또한 여러 프랑스 대기업을 아우르며 장애학생들의 고용을 위해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트렘플린(Tremplin)의 회원이다. TF1은 30여명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Bouygues Telecom

부이그 텔레콤

- **재생 에너지로 기지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두 가지 솔루션을 남서부에서 실험하였다.** 하나는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결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어 리퀴드(Air Liquide)사와 제휴하여 연료 전지를 사용

한 것이다. 같은 종류로는 세계 최초로 실시된 이러한 주도적 실험은 환경 에이전시인 ADEME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았다.



- **부이그 텔레콤은 사회적 감사 프로그램을** 주로 중국과 동유럽 국가 같은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하청업체들이 휴대폰 액세서리나 프로

모션 상품들을 인간다운 노동 조건에서 제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중고 휴대폰 수거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작동되는 핸드셋은 재처리 되어 빈곤층도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서 판매된다. 나머지는 재활용을 위해 폐기된다.
- **부이그 텔레콤**은 부르주(Bourges)에 새로운 고객 관계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HEQ® (High Environmental Quality) 원칙을 적용해왔다. 에너지 및 폐기물 관리, 고객 상담사의 청각적/시각적 편안함,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의 인체공학적 정비 부문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립하였다.

연구개발(R&D)비 지출 2005년 137 M€



혁신, 연구, 개발

그들의 R&D의 핵심은 계열사별로 분권화되어 있다. 이는 연구원들이 서로 다른 쟁점에 대해 적합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부이그 주식회사의 전문가팀인 'e-Lab'은 디지털화에 그룹 전체를 대비시키고 있다. 혁신 담당 책임자들이 모인 혁신지원부가 창설되었다.

기술을 넘어서서 혁신의 문화는 기업의 모든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다. 2005년에 부이그 건설의 첫 혁신 공모의 여러 다른 범주가 이를 증명한다. 엔지니어링, 공사, 영업, IT, 경영-재무-법무, 인사 등 다양하다. 1 000명 이상의 직원을 대표하는 330개 이상의 공모서가 제출되었다. 입상작 가운데에는 컴퓨터가 없는 공사현장인부들이 인터넷 사이트와 기업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ETDE 멀티미디어 단말기도 포함되어 있다.

부이그 텔레콤의 제 3차 혁신 포럼은 300개의 입상작 중 14개 프로젝트를 발탁하였다. 하나의 예로서 A4 용지보다 작은 헤르츠식 안테나인 'Flat FH'이 환경 적응력 면에 있어 뛰어나다.



탕제(Tanger)항

글로벌 건설업체

부이그 건설은 건축, 공공토목공사, 그리고 전기 보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부이그 건설의 노하우는 프로젝트 디자인부터 이용, 유지보수에까지 이른다

프랑스

2005년은 일드프랑스(파리 및 근교)에서나 지방에서 매우 큰 폭의 성장(+ 11%)을 이룩한 한 해였다. 건축업 분야에서 특히 부동산 개발 등의 고부가가치 기회에 집중한 영업 전략은 결실을 거뒀다. 공공토목 공사는 특히 진행중인 A28 고속도로 공사와 파리 지역의 그레지용(Grésillons) 폐수정화시설 공사 덕분에 2004년의 만족할 만한 활동 수준을 유지하였다.

해외

서유럽에서는 부이그 건설은 영국, 스위스, 스페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의 활동은 스위스에서의 매출 급등(+ 15%)과 함께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영국에서 이미 여러 병원, 학교, 그리고 공공 건물 건설에 참여해온 부이그 UK는 이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민간 재정 주도)' 계약으로 추진되는 사회주택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동유럽에서는 인프라 건설 공사 덕분에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 헝가리의 M5 고속도로, 슬로바키아의 프조(Peugeot) 공장 등이 그 예이다. 러시아는 중요한 개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부이그 건설의 활동이 홍콩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확대되었다.

중부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부이그 건설은 인프라 및 호텔 건설 분야에서 전문적 자문을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꾸준히 안정된 활동을 펼쳤다.

전기와 유지보수

ETDE는 2005년에 높은 매출 증가(+ 39%)를 이루었다. 프랑스에서는 ETDE가 기술 범위를 넓히고 지역적 커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 10건의 신규 인수를 추진했다. 조직체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는, ETDE가 데이빗 웹스(David Webster)와 ICEL을 인수하였고 PFI 형식의 공공 조명 계약들을 처음으로 따냈다.

주요 사항

신규 사업권

- A41 고속도로 (500 M€).
- 사이프러스 공항들 (500 M€).
- 고트랭(Gautrain), 남 아공 프리토리아-요 하네스버그 연결 철도 (500 M€).

제결된 주요 계약

- 라데팡스의 T1 타워 (97 M€).
- 상스(Sens)에 위치한 르노 물류기지 (77 M€).
- 핀란드 EPR 원자력 발전소 올킬루오토 (Olkiluoto) (170 M€).
-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위치한 호텔 및 오피스 단지 (165 M€).

진행중인 건설 프로젝트

- 홍콩의 록 마 차우(Lok Ma Chau) 터널 (290 M€).
- 모로코 탕제(Tanger) 항구 (170 M€).

완료된 건설 프로젝트

- A28 고속도로 (658 M€).
- 홍콩 전시센터 (245 M€).
- 영국 내우부 (325 M€).

2005년 매출
6 131 M€
(+ 11%)

영업 이익
238 M€
(+ 42%)

순이익 (그룹 지분)
175 M€
(+ 25%)

직원 수
38 500

2006년 목표 매출
6 450 M€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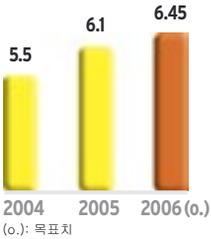
회계기준 IFRS
(o.): 목표치



> 2005년의 훌륭한 영업 및 재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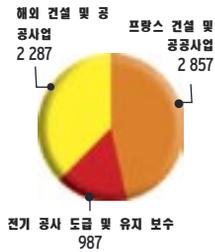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십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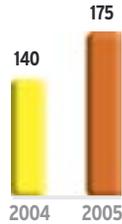
사업부문별 매출액

단위 :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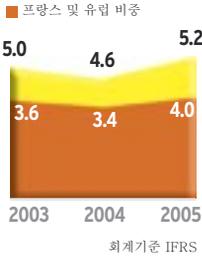
순이익

단위 : 백만 유로



수주 현황

단위 : 십억 유로



2006년 전망

수주액은 2005년 말 2004년 말 대비 13% 증가한 52억 유로에 달했다.

부이그 건설은 4개축을 통한 개발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 **전기공사계약과 유지보수:** 해외 부문이 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다.
- **민관협력:** 영국의 브룸필드(Broomfield) 병원이나 프랑스 캉(Caen) 병원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발전:** 자산관리회사인 AdValys 나 PPP 투자 펀드인 Challenger Investissement가 출범하여 규모가 커지고 있다.
- **인프라 및 교통수단 건설권:** 2005년에 획득한 세건의 중요한 건설대행계약 (프랑스의 A41 고속도로, 사이프러스 공항철,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고틀랭[Gautrain] 프로젝트) 이 2005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발효될 것이다.

연결 대차대조표, 12월 31일 기준

자산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 유형 및 무형 고정자산	296	265
• 영업권	145	175
• 고정 금융 자산	170	218
고정 자산	611	658
• 유동 자산	1972	2 255
• 현금 및 현금등가물	1773	2 074
• 금융 상품 (금융기관차입)	-	-
유동 자산	3 745	4 329
자산 총계	4 356	4 987
부채 (단위 : 백만 유로 - IFRS)		
• 자본 (그룹 지분)	302	414
• 소액주주지분	3	4
자기 자본	305	418
• 장기 부채	134	122
• 장기 미지급 비용	437	519
• 기타 고정 부채	1	1
고정 부채	572	642
• 부채 (1년 내 만기)	24	4
• 유동 부채	3 363	3 849
• 단기은행차입금 및 당좌대월	92	74
• 금융상품 (금융기관 차입)	-	-
유동 부채	3 479	3 927
부채 총계	4 356	4 987
순부채	(1 523)	(1 874)

연결 손익 계산서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매출액	5 512	6 131
경상 영업 이익	168	249
• 기타 영업 이익 및 비용	-	(11)
영업 이익	168	238
• 순부채이익	26	32
• 기타 금융 이익 및 비용	2	1
• 법인세 비용	(59)	(114)
• 참여지분의 손익배당	3	19
사업폐지 및 판매보유부문 운영 전 순이익	140	176
• 사업폐지 및 판매보유부문 순이익	-	-
순이익 총계	140	176
• 소액주주지분	-	1
연결 순이익 (그룹 지분)	140	175



파리 오스만(Haussmann)가 96번지

프랑스 부동산 개발의

프랑스 내 32개 사무소와 유럽 내 7개 현지사무소를 통해 부이그 부동산은 주택, 사무실 건물, 상업지구 등을 설계하며 건축하고 있다.

건실한 재정 상황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익(+41%)에 힘입어 부이그 부동산은 2005년에도 역시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주택 시장

부이그 부동산은 낮은 이자율, 주택시장 장려 세무 조치 그리고 상당한 주택 수요로 인해 지지되고 있는 주택 시장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유럽에 있는 474채의 주택을 포함하여 8 208채의 주택으로 예약 매물 주택수는 21% 증가하였다. 프랑스에서의 증가율은 17%에 이르렀다 (파리 지역에서 +8%, 지방에서 +24%).

특히 파리 외곽, 프랑스 남부 및 남동 지역(PACA), 퐁알프 지역 그리고 대서양 연안에서 강한 수요가 나타났다.

부이그 부동산은 새로이 아미앵, 그르노블 그리고 로리앙에 세 개의 사무소를 오픈으로써 국내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주택 부분의 매출액은 21% 증가하였다.

기업 및 상업 부동산

기업 부동산 시장의 무기력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부이그 부동산은 신규 사무실 부문에서 1위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부이그 부동산은 157 000 m²에 달하는 사무실, 상점, 그리고 호텔을 매매하였다. 이중 52 000 m²가 프랑스 외 유럽국가에 있는 부동산이다

프랑스 외 유럽 시장

부이그 부동산은 이 회사가 진출한 5개국에서 발전했다. 독일,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유럽에서의 비즈니스는 전체 매출액의 10.8%를 차지한다.

주요 사항

주택

- 예약 매물 주택 8 200 채, 21 % 증가.
- 지방에서의 큰 폭 성장세.
- 유럽 주택 개발.

사무실 및 상가

- 사무실 및 상가 157 000 m² 판매 : 파리 지역(이씨 레 물리노[Issy-les-Moulineaux]의 46 000 m² 포함)에서 57 000 m², 특히 리옹, 디종을 비롯한 지방에서 48 000 m² 그리고 유럽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52 000 m².
- 파리 오스만가 96번지의 재개발 오피스 23 000 m² 인도

개발

- 이씨 레 물리노에 사무용 건물 부지 (87 000 m²) 지대 부담 협약

2005년 매출액
1 557 M€
(+ 20%)

영업 이익
156 M€
(+ 31%)

순이익 (그룹 지분)
90 M€
(+ 41%)

직원수
1 000 명

2006년 목표 매출액
1 750 M€
(+ 12%)

회계기준 IFRS
(o.): 목표치



> 2005년 또 다시 성장한 주택 부동산 비즈니스 > 이익의 급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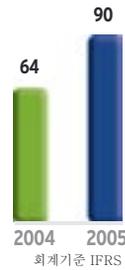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십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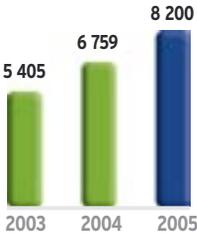
순이익

단위 :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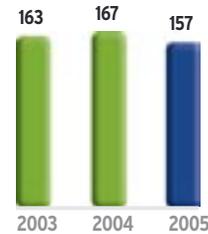
주택

매물 예약건, 단위 : 채



기업 부동산

매물 예약건, 단위 : 천m²



2006년 전망

프랑스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부이그 부동산은 유럽에서 주요 사업자가 되고자 한다. 부이그 부동산의 전략적 축은 다음과 같다.

- 주로 지방 주택 부문에서 발전을 이루고 사무실 부문의 위험요소를 제어하며 유럽, 이베리아 반도, 폴란드 시장에서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역동적이면 시도 신중한 성장**을 추구한다
- **높은 수익성**을 유지한다
- 채무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견고한 재무 구조**를 유지한다

2006년 매출은 2005년에 확인된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이그 부동산은 안정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주택 매물 예약건수가 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업 부동산 부문에서의 활동이 이미하게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결 대차대조표, 12월 31일 기준

자산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 유형 및 무형 고정자산	45	47
• 영업권	-	-
• 고정 금융 자산	30	34
고정 자산	75	81
• 유동 자산	826	957
• 현금 및 현금등가물	313	237
• 금융 상품 (금융기관차입)	-	-
유동 자산	1139	1194
자산 총계	1214	1275
부채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 자본 (그룹 지분)	238	284
• 소액주주지분	10	1
자기 자본	248	285
• 장기 부채	44	72
• 장기 미지급 비용	66	79
• 기타 고정 부채	8	5
고정 부채	118	156
• 부채 (1년 내 만기)	15	14
• 유동 부채	828	819
• 단기은행차입금 및 당좌대월	3	1
• 금융상품 (금융기관 차입)	2	-
유동 부채	848	834
부채 총계	1214	1275
순부채	(249)	(150)

연결 손익 계산서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매출액	1295	1557
경상 영업 이익	119	156
• 기타 영업 이익 및 비용	-	-
영업 이익	119	156
• 손 차입비용	-	1
• 기타 금융 이익 및 비용	(11)	(12)
• 법인세 비용	(40)	(53)
• 참여지분의 손익배당	-	-
사업폐지 및 판매보유부문 운영 전 순이익	68	92
• 사업폐지 및 판매보유부문 순이익	-	-
순이익 총계	68	92
• 소액주주지분	4	2
연결 순이익 (그룹 지분)	64	90



A26 도로 건설

도로 건설 부문의 세계

콜라스는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관련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콜라스는 채석공장 및 혼합 공장에서부터 유제 및 접합재 생산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산업활동을 아우른다.

콜라스(Colas)의 지역 기업 네트워크는 40여 개국에서 확장되고 있다. 콜라스는 2005년에 유망한 시장, 유리한 기후 조건 그리고 대외 성장 계획 덕분에 프랑스와 해외에서 상당히 높은 매출 증가(+ 18.9%)를 기록했다.

원자재, 특히 원유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23% 증가하여 3억 1천 2백만 유로에 달한다.

프랑스

프랑스에서의 매출액은 11.2% 증가하였다. 도로, 철도, 방수 관련 자회사들의 성장은 지자체와 민간 부문 투자, 대중교통 프로젝트(전차, 동유럽 고속철도) 그리고 도시 정비 계획 덕분이다.

안전 및 신호 표지 담당부는 프로사인(Prosign)과 벨루바인(Veluvine)의 인수와 함께 도로 생산 및 유럽에서의 도로 작업을 강화하였다. 파이프라인 및 배선망 부문의 활동은 안정적이다.

해외 및 해외영토

매출은 주요 진출지역 전체에서 29.8% (이 중 40%는 해외 성장에 기인) 증가하였다: 유럽(+ 45%), 북미(+ 20%), 아프리카 / 아시아/ 인도양(+ 16%)

산업 활동

2005년, 콜라스는 1억 110만 톤의 골재 (20 내지 25 년분), 5 380 만 톤의 도로포장용 타르, 150만 톤의 유제 및 접합재 (세계 1위), 그리고 2 170만 m²의 방수막을 생산하였다.

주요 사항

프랑스 내 몇몇 공사 현장
고속도로 A4, A25, A63, A7, A89에서 도로 보수 작업; 모(Meaux)의 남서쪽 우회도로 건설; 트램웨이 (마르세이유, 몽펠리에, 파리 등); 리옹의 Salle 3 000의 아스팔트 루핑 및 클래딩 작업; 프랑스 동부까지 연결되는 동유럽 고속철도 선로 작업

해외 및 해외영토의

공사 현장
벨기에의 앤트워프 (Antwerp) 링 로드 리노베이션 2단계; 영국 포츠머스(Portsmouth) PFI 계약 첫해; 헝가리 M5 와 M3 고속도로의 여러 구간 건설; 미국 버지니아주의 노포크 (Norfolk)항의 컨테이너 저장 시설(플랫폼) 완성; 마다가스카르의 RN6 도로의 300 km 구간의 건설 및 리노베이션; 레위니옹 (la Réunion)의 타마랭의 길 (la Route des Tamarins) 구간 건설; 기아나 쿠루(Kourou)의 소유즈 (Soyouz) 발사대의 플랫폼 토공사

2005년 매출액
9 540 M€
(+ 19%)

영업 이익
390 M€
(+ 35%)

순이익 (Group share)
307 M€
(+ 22%)

직원수
57 800 명

2006년 목표 매출액
10 100 M€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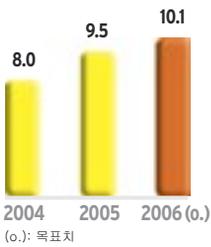
회계기준 IFRS
(o.): 목표치



> 2005년 매출 및 이익의 엄청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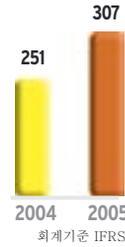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십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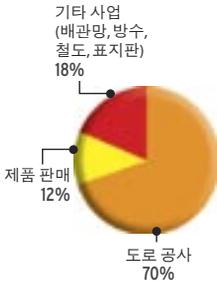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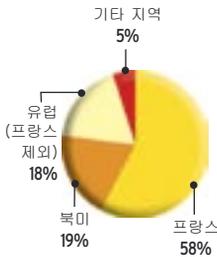
단위 : 백만 유로



사업 부문별 매출



지역권별 매출



2006년 전망

2005년 4사분기에 높은 수준의 활동과 함께 **수주액**은 2005년 12월 말 18% 증가세를 보였다.

진행중 또는 검토중인 계획들을 보면 2006년 상반기에도 계속 프랑스에서나 해외에서나 상당한 규모의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인수**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2006년 중에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이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올바른 시장 방향성을 확인함에 따라 콜라스는, 지역 기업 네트워크, 산업활동, 신규계약(민관 협력)분야에서의 전문성, 57 800 명의 직원들, 기술력과 건설한 재무구조에 힘입어, **수익성을 동반한 성장 전략에 있어 새로운 단계**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연결 대차대조표, 12월 31일 기준

자산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 유형 및 무형 고정자산	1 438	1 687
· 영업권	170	205
· 고정 금융 자산	394	428
고정 자산	2 002	2 320
· 유동 자산	2 415	2 960
· 현금 및 현금등가물	635	661
· 금융 상품 (금융기관차입)	5	9
유동 자산	3 055	3 630
자산 총계	5 057	5 950
부채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 자본 (그룹 지분)	1 205	1 451
· 소액주주지분	25	27
자기 자본	1 230	1 478
· 장기 부채	89	108
· 장기 미지급 비용	413	471
· 기타 고정 부채	46	59
고정 부채	548	638
· 부채 (1년 내 만기)	50	38
· 유동 부채	3 151	3 687
· 단기은행차입금 및 당좌대월	74	100
· 금융상품 (금융기관 차입)	4	9
유동 부채	3 279	3 834
부채 총계	5 057	5 950
순부채	(423)	(415)

연결 순이익 계산서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매출액	8 024	9 540
경상 영업 이익	289	422
· 기타 영업 이익 및 비용	-	(32)
영업 이익	289	390
· 순 차입비용	(7)	(10)
· 기타 금융 이익 및 비용	24	4
· 법인세 비용	(95)	(121)
· 참여지분의 손익배당	42	49
사업폐지 및 판매보유부문 운영 전 순이익	253	312
· 사업폐지 및 판매보유부문 순이익	-	-
순이익 총계	253	312
· 소액주주지분	2	5
연결 순이익 (그룹 지분)	251	307



프랑스 대 사이프러스 경기

프랑스 제 1의 텔레비전

프랑스 종합 채널의 선두주자인 TF1은 테마 채널, 인터넷 사업, 방송권, Pay TV 파생상품 등 여러 부자적인 사업을 통해 다각화하였다.

TF1 (핵심채널)

2005년, TF1은 그 해의 상위 시청률 100개 프로그램 가운데 97개를 차지하면서 1991년 이후 최고 성적을 기록하였다. 4세 이상 시청자의 32.3%를 끌어모았다. 이는 0.5 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모든 채널 중 가장 큰 시청률 상승폭을 보였다. 픽션 부문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TV 시리즈물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한편, TF1은 장르를 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였다. 영화 부문은 여전히 엄청난 수의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일례로 1150만 명의 시청자가 'The Dinner Game' 을 보았다. 2005년의 또 다른 특징은 황금시간대에 미국 시리즈물이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벤트성 오락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면 이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인 편성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뉴스 프로그램은 2004년보다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 모았다.

광고

식품업계 광고주들 투자가 9% 하락하는 등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TF1의 광고 수입은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TF1은 54.4%의 TV 광고 시장 점유율과 함께 1위 자리를 고수했다. 프랑스의 테마 채널은 16%의 광고매출 증가를 기록하였다.

사업 다각화

다각화 사업의 매출은 1.9% 증가하였다 (유사 조건에서는 전년 대비 +3.8%).

TF1 International의 매출은 특히 상영관용 영화 배급 사업의 성공 덕분에 증가하였다.

Canal+ 그룹과의 합병 계획 대상인 TPS는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도 6%의 매출 증가를 이루었다.

e-TF1은 프랑스 선두 미디어 포털인 tf1.fr의 성공과 TF1 오락 프로그램과 연계된 Audiotel - SMS 사업의 엄청난 성과를 누렸다.

주요 사항

- **12월** : TPS 와 Canal+ 간의 합병 계획 발표.
- **10월** : 1330만 명의 시청자가 TF1을 통해 프랑스 대 사이프러스 축구 경기를 시청.
- **여름** : 평균 1200만 명의 시청자가 여름 TV 시리즈 '돌멘(Dolmen)' 시청
- **7월** : TF1의 6개 채널이 Mediacabsat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6월 12일까지의 케이블 및 위성 채널 시청률) Top 10에 포함
- **상반기**, 자회사인 Visiowave와 Studios 107 매각
- **6월** : 2010년과 2014년 월드컵 프랑스 내 단독 중계권
- **5월** : TMC 지분 40% 획득
- **3월** : 우슈아이가 TV 출범. 프랑스 내 DTT(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출범 : TF1은 무료 서비스 (TF1과 TMC)를 위한 두 개의 라이선스, 유료 서비스를 위한 네 개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2005년 매출액
2 509 M€*
(=)

*TPS 제외

영업 이익
353 M8 pts*
(- 7%)

*TPS 제외

순이익 (그를 지분)
236 M8 pts
(+ 5%)

직원수
4 100 명

2006년 목표 매출액
2 620 M8 pts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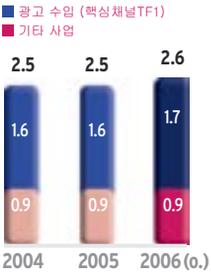
회계기준 IFRS
(o.): 목표치



> 2005년 시청률 시장점유율 최고치 증가
> 매출 순이익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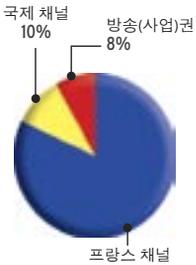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십억 유로



* TPS 제외
(o.): 목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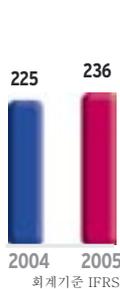
사업 부문별 매출*



* TPS 제외

순이익

단위 : 백만 유로



회계기준 IFRS

시청률 비중

4세 이상 개인

2006년 전망

TF1은 전략의 틀 안에서 발전을 지속하고자 한다. TF1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

- 프랑스에서 **프로그램 제작** 부문의 선두 자리를 지킨다
- **유로스포르츠(Eurosport)**를 발전시킨다
- **신기술**에 적합한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2006년에 TF1 그룹의 매출은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컵을 제외한 프로그램 편성 비용은 약 3% 증가할 것이다.

연결 대차대조표, 12월 31일 기준

자산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 유형 및 무형 고정자산	333	332
• 영업권	889	481
• 고정 금융 자산	108	118
고정 자산	1330	931
• 유동 자산	1771	1787
• 현금 및 현금등가물	159	176
• 금융 상품 (금융기관 차입)	12	12
유동 자산	1942	1975
• 판매보유자산	-	564
자산 총계	3272	3470
부채 (단위 : 백만 유로 - IFRS)		
• 자본 (그룹 지분)	975	1051
• 소액주주지분	1	(1)
자기 자본	976	1050
• 장기 부채	524	513
• 장기 미지급 비용	30	32
• 기타 고정 부채	63	49
고정 부채	617	594
• 부채 (1년 내 만기)	32	26
• 유동 부채	1623	1450
• 단기은행차입금 및 당좌대월	17	-
• 금융상품 (금융기관 차입)	7	-
유동 부채	1679	1476
• 유동 부채	-	350
부채 총계	3272	3470
순부채	409	351

연결 손익 계산서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매출액	2501	2509
경상 영업 이익	381	339
• 기타 영업 이익 및 비용	-	14
영업 이익	381	353
• 순 차입비용	(17)	(13)
• 기타 금융 이익 및 비용	4	-
• 법인세 비용	(137)	(115)
• 참여지분의 손익배당	(5)	(5)
사업폐지 및 판매보유부문 운영 전 순이익	226	220
• 사업폐지 및 판매보유부문 순이익	(2)	14
순이익 총계	224	234
• 소액주주지분	(1)	(2)
연결 순이익 (그룹 지분)	225	236

TPS 는 판매보유자산 항목에 가입되어 있다.



브로드밴드 i-mode™ 캠페인

이동 통신 서비스

부이그 텔레콤은 2005년에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진입하였다. 부이그 텔레콤의 Edge 네트워크로 인해 프랑스 인구의 90% 이상이 완전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브로드밴드 i-mode™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브로드밴드

5월에 부이그 텔레콤은 기업 고객과 전문가들에게 포괄적인 초고속 데이터 요금제 및 Universal Text Messaging을 제안하면서 Edge 네트워크를 열었다. 특히 초고속 디지털 카드를 장착한 노트북 컴퓨터나 PDA 혹은 스마트 폰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월에 부이그 텔레콤은 초고속 인터넷을 혁신적인 여러 종류의 i-mode™ 신규서비스를 통해 일반 대중(커버리지 : 인구의 90%)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매일 무제한 무료 이용, MSN Messenger를 비롯한 여러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 접속, TPS와 함께 하는 TV 서비스, 음악 다운로드 및 개선된 i-mode™ 포털. 첫 번째 무제한 브로드밴드 i-mode™ 요금제는 월 9.90 유로에 책정되었다. 두 대의 Edge - i-mode™ 신규 단말기가 제안되었다(Nec과 Samsung).

무제한 서비스

이동통신 음성통화 사용을 계속해서 늘리기 위해서 부이그 텔레콤은 무제한 서비스의 폭을 넓혔다 :

- 특별 Expression 요금제들을 통해, 18시 이후 저녁 시간과 주말 내내, 프랑스 내 모든 유선 전화로의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다
- 특별 Emotion 요금제들은 프랑스 내 모든 유선선 이동사 가입자에게 20시부터 자정까지 통화시작 3초 이후부터 무제한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한 첫 상품이다.
- 크리스마스에는 90분 통화를 초기 제공하는 특별 Expression 요금제가 다시 런칭되었다. 새로운 Nomad 무제한 충전 카드도 런칭되었다. 이 카드로 고객은 40분의 통화시간 및 모든 유선전화와 부이그 텔레콤 가입자에게 20시부터 자정까지 매일 저녁 무제한 통화를 제공받는다.

유니버설 모바일(Universal Mobile)

유니버설 모바일(Universal Mobile)은 젊은 층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2005년 말, 가입자수가 36만 명을 넘어섰다. 선불카드를 10월에 출시함으로써 요금제가 개선되었다.

주요 사항

- **12월** : 가입자수가 8백만 명선을 넘어섰다 ; 부이그 텔레콤은 경쟁 위원회의 결정(추정되는 공모 혐의에 대해 5 800만 유로의 벌금)에 대해 상소할 생각이 있음을 발표했다.
- **10월** : 필립 몽타네 (Philippe Montagner)가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 모바일 디지털 TV (DVB-H 표준)의 테스트 개시 ; 일반대중을 위한 브로드밴드 i-mode™ 런칭 ; 부이그 텔레콤 매장(Club Bouygues Telecom)의 새로운 컨셉 공개.
- **8월** : Emotion 요금제 실시.
- **5월** : Edge 망(커버리지 : 인구의 85%)을 사용하는 기업 고객들을 위한 초고속 서비스 도입.
- **1월** : 'bill & keep' 시스템 종료 및 이동통신사간 모바일 투 모바일 빌링(mobile-to-mobile billing) 제도 도입 ; Expression 요금제 실시.

2005년 매출액
4 537 M€
 (+ 24%)
* mobile-to-mobile billing 도입으로 + 2% (2004년 요금기준)

세인트이악(Eutda) / 네트워크 손매출
31,8%
 (+ 3.3 points)

순이익 (Group share)
352 M€
 (+ 8%)

직원수
7 300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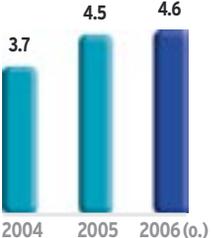
2006년 목표 매출액
4 580 M€
 (+ 1%)
회계기준 IFRS (o.) : 목표치



> 2005년 브로드밴드 i-mode™ 서비스 런칭 및 이익 상승

매출액

단위 : 십억 유로



(o.) : 목표치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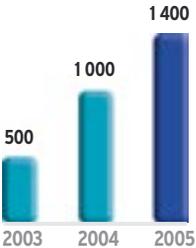
단위 :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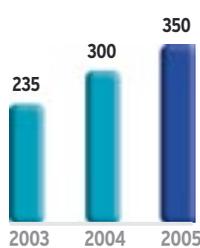
회계기준 IFRS

i-mode 가입자 수

단위 : 천 명



i-mode 사이트 수



2006년 전망

- 부이그 텔레콤은 **품질 및 브로드밴드 i-mode™ 서비스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서비스**를 토대로 가입자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니버설 모바일을 기본으로 한 특수 부문에서의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규제기관이 정한 통화 종료 요금 24% 인하는 매출 증가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 네트워크 순매출은 1% 증가하여 42억 8천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유통 통제장은 강화될 것이다. 모든 매장은 고객 편의를 위해 점진적으로 재정비될 것이다.
- 부이그 텔레콤은 **서비스의 질**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객 관계 센터의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유의할 것이다.

연결 대차대조표, 12월 31일 기준

자산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 유형 및 무형 고정자산	3133	3078
• 영업권	12	12
• 고정 금융 자산	428	205
고정 자산	3573	3295
• 유동 자산	802	1011
• 현금 및 현금등가물	15	5
• 금융 상품 (금융기관차입)	12	-
유동 자산	829	1016
자산 총계	4402	4311
부채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 자본 (그룹 자본)	1783	2132
• 소액주주지분	-	-
자기 자본	1783	2132
• 장기 부채	1187	434
• 장기 미지급 비용	30	54
• 기타 고정 부채	-	-
고정 부채	1217	488
• 부채 (1년 내 만기)	9	11
• 유동 부채	1365	1679
• 단기은행차입금 및 당좌대월	-	-
• 금융상품 (금융기관 차입)	28	1
유동 부채	1402	1691
부채 총계	4402	4311
순부채	1197	441

연결 손익 계산서

(단위 : 백만 유로 - IFRS)	2004	2005
매출액	3666	4537
경상 영업 이익	597	656
• 기타 영업 이익 및 비용	-	(58)
영업 이익	597	598
• 순 차입비용	(62)	(26)
• 기타 금융 이익 및 비용	(7)	-
• 법인세 비용	(196)	(220)
• 참여지분의 손익배당	-	-
사업폐지 및 판매보유부문 운영 전 순이익	332	352
• 사업폐지 및 판매보유부문 순이익	-	-
순이익 총계	332	352
• 소액주주지분	-	-
연결 순이익 (그룹 자본)	332	352

Bouygues

Challenger

1, avenue Eugène Freyssinet
78061 St. Quentin-en-Yvelines Cedex
France
Tel.: +33 1 30 60 23 11
www.bouygues.com

Bouygues Construction

Challenger

1, avenue Eugène Freyssinet
78061 St. Quentin-en-Yvelines Cedex
France
Tel.: +33 1 30 60 33 00
www.bouygues-construction.com

Bouygues Immobilier

150, route de la Reine

92513 Boulogne-Billancourt Cedex
France
Tel.: +33 1 55 38 25 25
www.bouygues-immobilier.com

Colas

7, place René Clair

92653 Boulogne-Billancourt Cedex
France
Tel.: +33 1 47 61 75 00
www.colas.fr

TF1

1, quai du Point du jour

92656 Boulogne-Billancourt Cedex
France
Tel.: +33 1 41 41 12 34
www.tf1.fr

Bouygues Telecom

Arcs de Seine

20, quai du Point du jour
92640 Boulogne-Billancourt Cedex
France
Tel.: +33 1 39 26 75 00
www.bouyguetelecom.fr

BOUYGUES